“기술로 예술의 문턱 낮춘다”
GIST, 2026 장애예술창작페스타서
배리어프리 인터랙티브 기술 체험 선보여

- AI학과 송은성 교수 연구팀, 13~14일 제주 행사서 ▲‘지스트의 과일 사진가게’ ▲‘제스쳐(GeSTure)’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 2종 소개
- 몸을 움직여 과일 받는 게임부터 5명이 함께 손 모양 만드는 체험까지...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소통 방식 제시



▲ GIST AI학과 송은성 교수 연구팀. (윗줄 왼쪽부터) 강민성 학부생, 송은성 교수, 김호민 학부생. (아랫줄 왼쪽부터) 김택림 학부생, 한지석 학부생, 김수빈 연구원, 주현수 학부생.

광주과학기술원(GIST·지스트, 총장 임기철)은 **AI학과 송은성 교수 연구팀**이 11월 13일(금)부터 14일(토)까지 제주아트플랫폼에서 열린 **‘2026 장애예술창작페스타’**에 참여해 **관람객의 움직임과 손짓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2종을 선보였다**고 밝혔다.

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**‘열린감각**(OPEN SENSES)**’을 주제로 서로 다른 감각과 표현 방식이 만나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만들어 가는 자리**로 마련됐다. GIST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.

GIST 연구팀은 이번 행사에서 **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감각과 상호작용을 체험하는 ‘열린기술**(OPEN TECH)**’ 프로그램**에 참여했다.

연구진은 **‘미래의 기술, 새로운 감각을 열다’를 주제**로 손짓과 움직임, 이미지 등을 활용한 **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였다.** 관람객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화면 속 콘텐츠가

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.

이번에 선보인 콘텐츠는 송은성 교수의 지도를 받는 **GIST 학생들이 개발한 '지스트의 과일 사진가게'와 '제스쳐**(GeSTure)**' 등 2종**이다.



▲ '2026 장애예술창작페스타'에서 관람객들이 GIST 연구팀이 개발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. (왼쪽) '지스트의 과일 사진가게', (오른쪽) '제스쳐(GeSTure)'.

'지스트의 과일 사진가게'는 김수빈 연구원(AI학과 Art & Tech 랩 연구원)과 김호민(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3학년)·주현수(수리과학과 2학년) 학생이 참여해 개발한 콘텐츠다. **인공지능**(AI) **기반 동작 인식 기술**을 활용해 **관람객이 머리와 몸을 움직이면 화면 속 캐릭터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떨어지는 과일을 받는 게임**을 즐길 수 있다. 체험이 끝나면 관람객의 모습을 **네 컷 사진으로 기록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.**



▲ '지스트의 과일 사진가게' 체험을 마친 관람객이 네 컷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

'제스쳐(GeSTure)**'**는 강민성·김택림(AI학과 2학년)·한지석(생명과학과 2학년) 학생이 개발에 참여한 콘텐츠다. 관람객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에 접속한 뒤 **손가락 움직임으로 화면 속 가상의 손을 조작**할 수 있다. **다섯 명의 관람객이 각각 손가락 하나씩을 제어해 하나의 손 모양을 완성**하면, **AI가 이를 해석해 관련 단어를 시각화하고 문장으로 확장**한다. 이를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한다.

연구팀은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**대학에서 개발한 기술·예술 융합 콘텐츠를 실제 문화예술 현장에서 선보이고, 다양한 관람객과 소통**했다.

특히 장애 유무나 신체적·감각적 차이에 관계없이 **누구나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'배리어프리**(Barrier-Free)**'의 취지**와 연계해,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참여와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다.

송은성 교수는 "이번 행사는 **GIST 학생들이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기획**하고, 이를 **실제 현장에서 선보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**"라며 "앞으로도 학생들이 **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경험**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.

김수빈 연구원은 "**기술의 가치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**고 생각한다"며 "이번 행사에서 **관객 한 분 한 분의 움직임이 즐거운 추억과 새로운 소통**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"고 전했다.